

팬클럽·포럼... 대선주자 광주·전남 조직 ‘텃밭 민심잡기’ 활발

차기 대선을 앞두고 대권 주자들을 지지하는 팬클럽 등 지지모임과 포럼 등 외곽조직 등이 경쟁적으로 조직·창립돼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외곽조직들은 광주·전남지역에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 향상을 위해 지지세 확산에 나서는 등 조직 간 ‘세 대결’도 만만치 않다.

대권 주자들 또한 현재까지 야권의 텃밭인 호남 민심이 뚜렷하게 지지하고 있는 야권 대권주자가 없는 만큼 향후 대선 풍향계가 될 ‘호남 민심’ 잡기를 위해 지지모임을 강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각 대선주자 지지모임=우선 야권의 선두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외곽 조직인 시민네트워크 형태의 ‘포럼 광주’가 지난 22일 출범했다.

이날 출범식은 주최 측이 1만여명이 참석했다고 밝힐 정도로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할 만큼 성대하게 치러졌다. ‘포럼 광주’는 강운태 전 광주시장의 조직이 주축이 돼 전·현직 정치인을 비롯, 학계와 시민사회 단체 회원 등을 총망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대선 이전까지 회원 1만여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다, 기존의 문 전 대표의 지지단체인 ‘시민의 힘’ 회원 등이 결합하면서 향후 광주·전남지역의 최대 외곽 조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 측도 당내 최대 지역적 기반인 호남에서 지지세력을 넓히는 등 본격적인 대선 준비 체제에 들어갔다.

안 전 대표의 외곽조직으로 알려진 ‘시민네트워크 무등’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팬클럽 12~13개가 현재 활동 중이다. 또한, 안 전 대표가 지난 2012년 대선 출마

문재인 ‘포럼광주’ 안철수 ‘시민네트워크 무등’

반기문 ‘반딧불이’ 이재명 ‘손가락 혁명군’

박원순 ‘희망 새물결’ 손학규 ‘손사모’

안희정 ‘더좋은 민주주의’ ... 대선 풍향계 될 듯

당시 지지세력으로 활동했던 진심 포럼 세력을 다시 규합한 ‘광주 내일 포럼’도 이날 출범에 활동 중이다. ‘광주 내일 포럼’은 정책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성남시장 측은 최근 SNS를 기반으로 형성된 자발적 지지자들의 모임인 ‘손가락 혁명군’이 큰 지지기반이 되고 있다. 손가락 혁명군은 지난 15일 광주에서 대규모의 출정식을 갖기도 했다.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측의 자발적인 지지 그룹도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전국 조직인 ‘희망 새물결’과 광주·전남지역의 ‘희망 포럼’이 활동하고 있다.

최근 국민주권개혁회의를 출범시키고 개헌을 연결 고리로 정치권의 ‘빅뱅’을 주장하고 있는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기존의 전국 조직인 동아시아미래재단과 광주·전남지부를 중심으로, 손사모(손학규를 사랑하는 모임), ‘민심 산악회’ 등 팬클럽 중심으로 지지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기존의 전국 조직인 ‘새희망 포럼’에 광주·전남지역의 자발적인 인사들을 합류시키는 등 조직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 측도 이달 초 ‘더좋은 민주주의 광주·전남 포럼’을 출범시키고, 세력 확장에 나서는 한편 광주·전남 일부 진성당원 중심으로 지지세력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대권도전을 선언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팬클럽인 ‘반딧불이’도 전국 시·도 조직을 구축하는 등 대선 외곽조직 구축 움직임을 활발해지고 있다.

‘반딧불이’ 외에도 ‘글로벌 반기문 국민협의체’ 등도 내년에는 전국 조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과열 조직에 선관위 단속 강화=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팬클럽 등 지지 모임이나 포럼 등이 최근 잇달아 조직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와 관련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팬클럽·포럼 등이 주관한 각종 세미나·결성식 등 각종 행사에 입후보 예정자를 초청해 축하·강연을 하게 하는 등 지지세 확산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이들 행사에서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체의 대표자 등을 방문·면담해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주요 행위는 ▲팬클럽이 각종 집회에 참석해 특정 정당

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구호 등을 연호하는 행위 ▲팬클럽이 선거승리 등을 결의하기 위한 출정식·전진대회 등을 여는 행위 등이다.

또 팬클럽이 후보자 당선을 위해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각종 모임을 열거나, 참석하는 회원에게 무료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위법하다.

단체가 지지 또는 반대할 후보자를 정한 후, 통상적인 통지방법을 벗어나 별도의 인쇄물·시설물·집회 등으로 알리는 행위도 할 수 없다. 다만, 팬클럽이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회비를 걷거나 친목도모 및 취미활동 차원에서 선거와 무관한 체육행사나 산행 등은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팬클럽·포럼 등이 순수한 목적의 설립 취지와 다르게 입후보 예정자의 사조직으로 변질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또한, 후보자를 위한 조직적인 불법선거운동이나 조직운영 관련 금품 제공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폐쇄명령·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

배우자들 뜨거운 ‘내조전쟁’

목욕탕·수산시장 찾아 이야기 듣고 봉사활동

일부는 외부 활동 안 나서고 ‘그림자 내조’도

“대권 민심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설 대목에 사력을 다하는 남편을 가만히 앉아 바라다보고만 있을 수는 없죠.”

설 연휴를 앞두고 여야 대선주자들의 레이스가 본격화하면서 ‘내조전쟁’이 뜨겁다. 예전에는 조용히 뒷바라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배우자들의 내조도 각양각색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아내인 김정숙씨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매주 빠지지 않고 1박2일로 광주를 찾아 지역인사들과 만났다. 호남 표심을 잡기 위한 문 전 대표와 김정숙씨의 ‘부장부수’가 눈길을 끈다.

방문 때마다 호텔 대신 허름한 외제미술품관이 운영하는 ‘촌철현’에서 묵고, 대중목욕탕을 다니면서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후문이다. 또한 여성계, 문화계, 종교계 인사 등과 티타임도 가지면서 하심 탄화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여수 사위’인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는 “조용한 내조” 컨셉으로 낮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 교수는 지난해 딸 설희 씨와 함께 첫

불집회에 연달아 참석했다. 지난 8일에는 친정인 여수에서 마라톤대회에 출전했고, 17일에는 안 전 대표와 함께 화재 피해를 본 여수수산시장을 방문했다.

안 전 대표측 관계자는 “김 교수는 안 전 대표가 2012년 정치를 시작한 이후 소리소문없이 조용히 돕고있다”며 “지역구인 서울 노원구 상계동 복지관에서 수시로 봉사활동을 하되 화려하게 축하한다거나 사진을 찍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부인인 유순택 여사는 조용하고 차분한 ‘그림자 내조’를 하고 있다. 실제로 유 여사가 반 전 총장과 함께 대외 일정을 소화한 경우는 지난 12일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의 기자회견과 이튿날 동차 현충원 참배와 고향 방문 일정 등 제한적이었다.

대신 남편의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후문이다.

반 전 총장 캠프의 한 관계자는 “유 여사는 반 전 총장에 대한 비판적 보도가 나오더라도 집에서는 반 전 총장이 언급하기 전에 먼저 말을 꺼내지 않는다”면서 “무엇보다 반 전 총장의 마음이 편안할 수 있도록 신경 쓰는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lee@·연합뉴스

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의 부인 김혜경씨는 조용히 이 시장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진도의 팽목항을 방문해 세월호 유가족을 위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또 지난 15일 광주에서 열린 ‘손가락 혁명군 출정식’, 23일 성남의 시계공장에서 열린 대선 출마행사에도 이 시장과 함께 했다.

같은 당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씨는 좀처럼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편이지만 지난 19일에는 서울 정동제일교회에서 ‘사람의 떡과 나누기’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조용히 활동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안희정 충남지사의 아내인 민주원씨는 언론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면 응하겠다는 적극적인 입장이다. 지난 22일 안 지사의 대선출마 선언 행사에 참석해서 “남편이 왕자병인 것 같다”는 ‘디스’로 웃음을 자아내는 등 화통한 성격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의 부인 오선혜 여사는 외부활동에 나서는 일이 거의 없다. 유 의원 스스로 가족을 동원해 유세에 나서는 것을 상당히 꺼리기 때문이다.

한 캠프 관계자는 “오 여사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부활동 대신 정치현안에 대해 조언하고 주변 여론을 전달하는 ‘그림자 내조’에 충실한 스타일”이라고 전했다. /이종행기자 glee@·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표 부인 김정숙씨



반기문 전 총장 부인 유순택씨



이재명 시장 부인 김혜경씨



안철수 전 대표 부인 김미경씨



안희정 지사 부인 민주원씨



박원순 시장 부인 강난희씨

무안출발은 조이투어로~ 비행기보다 오래 타는 버스는 이제 그만~! 이제부터 무안에서 편안하게 떠나세요

여행길의 즐거운 동반자!!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1층
Tel. (062)234-3222 Fax. (062)234-3141
NAVER 조이투어 검색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http://www.joytour.kr

대표이사 최금환

추천1. 무안→규슈/오사카 직항 전세기

규슈 출발일 : 12.16~2.26/3박4일

산악회를 위한 규슈올레길! 548,000~
기타큐슈 야마구치/미야지마 838,000~
기타큐슈 나가사키/우레시노 838,000~

오사카 출발일 : 1.30, 2.2/3박4일

오사카/나라/교토/고베 1,168,000~
오사카 유니버설스튜디오/교토/나라 1,168,000~
오사카/교토/와카야마/시라하마 1,298,000~

오사카 설연휴 : 1.27/3박4일

오사카 유니버설스튜디오/교토/나라 1,388,000~
오사카/교토/와카야마/시라하마 1,458,000~

추천2. 무안→라오스 직항 전세기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가장 가고싶은 곳 1위!!

★초특가 12/28, 1/9★
[육로]비엔티엔/방비엥/루앙프라방 949,000~
출발일 : 2016.12.28~2017.1.21/3박5일
[항공]비엔티엔/루앙프라방 1,498,000~
[항공]비엔티엔/방비엥/루앙프라방 1,548,000~



추천3. 무안→다낭 직항 전세기

출발일 : 2016.12.30~2017.2.24/3박5일
[관광]다낭/호이안/후에 1,149,000~
[골프]다낭 골프 54홀 1,649,000~

※공통포함사항 : 왕복항공료, TAX, 전일정식사, 관광지 입장료, 숙소, 여행자보험, 기사 및 가이드팁
※공통불포함사항 : 여권 및 개인비용(골프상품권, 물품, 중식, 불포함)

추천4. 무안→대만 직항 전세기

출발일 : 2016.12.7~2017.2.26/3박5일

[실속]타이페이/야류/화련/지우펀 699,000~
[품격]타이페이/야류/화련/지우펀 799,000~
[실속]타이중/야류/화련/지우펀 899,000~
[품격]타이중/야류/화련/지우펀 999,000~

<일본 전세기 특전>

스타플라이어항공 / 기종 : A320-200 / 좌석 : 150석



★한별제품★
한별에비뉴 고급 여행가방 증정!
(4인 가족 기준 1개 증정)
※실속 상품은 제외

★항공특가(항공권편도) 선착순 5명★

무안→기타큐슈 : 편도 50,000원부터~

무안→오사카 : 편도 98,000원부터~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제2003-1호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전차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율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금제 가입업체 ※예약시 계약서(취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결제방법 : 현금, 신용카드, 계좌이체 ※최소 출발인원 : 상용에 따라 다름

※공통조건 여행 경비 1인 기준 : 여행지보험 가입(해외상품:1억원 국내상품:5천만원) 관광진흥계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공통불포함사항 : 여권 및 개인비용(골프상품권, 물품, 중식, 불포함)

※공통불포함사항 : 여권 및 개인비용(골프상품권, 물품, 중식, 불포함)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